







특별부록

‘청소년여행문화학교-다시 함께 걷기’는 특별하다.
지금까지 참가자들 중 재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모여
문화체험을 하기로 하였다.

부록1 길에서 만나다
부록2 길 위의 많은 이야기들
부록3 '청.여.문'을 함께 한 멘토
부록4 멘토 & 멘티 여행 후기

길 위에서 사랑을 만나다







특별간식!
냠~냠~
인상꽃차라네











잔~우리의
빨간 버스!!!





길 위에서 아기들 만나다











우리의
빨간 버스



짠~ 우리의
빨간 버스!!!











길 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다

짠~우리의 빨간 버스!!!













우리의 빨간 버스



길 위에서 동물을 만나다



특별간식!
냠~냠~
인상공차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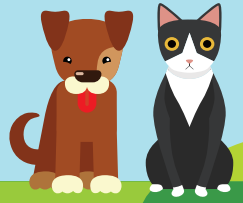
짠~우리의
빨간 버스!!!











길 위에서 자유를 만나다

특별간식!
냠~냠~
인삼꿀차라네





















우리의
빨간 버스

길 위의 많은 이야기들

24시간이 모자라!





서프라이즈 생일파티







사진찍을 때 필수! 고무고무 롱팔!





섬진강 즐기기





더위를 싹- 잊게 해준 꿀맛화채!





길에서 먹는 오이와 당근은 꿀맛~!



수염이 생겼어요~



세상끝까지~~



태양아래 열심히 걸었으니 피부관리는 필수!



아니, 이런 왕수세미!



영화속 한 장면처럼....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청.여.문'을 함께 한 멘토














이세희(232)
이끔이 선생님

한국의 길과 문화

한국의 길과 문화
열세번의 보물찾기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이끔이 232.
때론 리더로, 때론 멘토로, 때론 친구로, 때론 선생님으로,
때론 보호자로 다양한 얼굴과 역할을 맡아왔다.

다만 변하지 않았던 것은
나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조언자이고 권면자이다.
그의 앞에 서있기보다 그 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뒤에서 격려해주며 힘들어할 땐 옆에서 나의 경험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길에서 벗어났을 땐 그 옆에서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그가 넘어진 옆 자리에 함께 앉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따라가는 사람.

청.여.문 친구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이 순간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을 느껴보라고. 작은 것과 순간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더 멀리 크게 보면 훨씬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는 큰 벽을 자주 마주하지만,
훗날 오늘을 돌이켜봤을 때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참 좋은 시절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지금을 돌아볼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견뎌냈으면 좋겠다.
여행 전날이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항상 설레었고,
여행 중에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여행이 끝나 헤어짐을 말해야 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도 아쉬웠고,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이 항상 고마웠다.

2015년 13번의 청소년여행문화학교.
기꺼이 도와주고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하다.
기꺼이 도와주고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부단히 성장하고 다양한 얼굴로 청소년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위에 놓인 보물을 찾는 여행을 계속 할 것이다.





멘토 여행후기 01



청여문, 길 위에서 마주하는 삶

여행과 걷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다. 시간만 나면 여행을 떠나거나 아무 곳이나 걸어 다닌다. 청여문에 처음 지원하게 된 것도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은 하나가 더 늘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 청여문에 지원한다.

수업, 도서관, 집으로 반복되는 일상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다는 보람은 얻을 수 있지만 분명 지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다. 청여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멘토 선생님들, 멘티 아이들은 지겨운 일상에 활력소가 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대화를 통해 마주하는 다양한 삶은 내 사고방식이 틀에 갇히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된다.

2015년 12월, 1년 만에 청여문을 찾았고 16가지 모두 다 다른 색깔의 삶들을 만나게 되었다. 근호, 동학이, 미현이, 민경이, 성수, 우진이, 원진이, 인규, 재식이, 재훈이, 진근이, 진영이, 창규, 한수, 혁이, 혜정이. 다들 처음 봤을 때는 19살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지만 나이든 얼굴과 달리 곧 장난치며 웃는 모습들을 보니 아직까지는 10대구나 싶었다. 한겨울이어야 할 12월에 더위와 싸우며 다같이 바닷가를 걸었다. 누군가는 힘들다고 불평도 잠시 했지만 내 어이없는 장난에도 웃으며 받아주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며 걸었던 그 순간이 정말 좋았다. 표현은 거칠고 서툴렀지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각자 색다른 꽃을 피운 따뜻한 마음들은 선명하게 보였다.

간절곶 우체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박 3일간 여행의 아쉬운 마지막 일정이었으며, 서로에게 짧게나마 마음을 전하는 엽서를 써줄 수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내게도 엽서를 써주었다.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그 때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정들이 세세하게 되살아난다. 글재주가 좋았다면 내가 여행에서 받은 느낌들을 많은 아이들에게 엽서로 전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다. 부끄럽게도 내 멘티 재식이, 진근이 두 명에게 써주는 것도 겨우 해냈다. 아이들에게 그 때 전하지 못했으니 소감문을 빌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들 성인이 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택하길 바란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감도 함께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다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길, 어딘가 좋은 길 위에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되길 바란다.





부모-자녀 캠프에서 만난 가족들과 멘토들도 빼먹을 수 없으니 한 마디씩 하고 싶다. 정빈이 어머니, 와인은 좋은 친구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마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빈이, 저번에 봤을 때보다는 약간…? 철든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다. 지각은 이제 그만! 소연이 아버지, 아버지로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열심히 하시던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따님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연이, 생각지 못한 커플룩에 조금 당황스러웠네. 다음에는 쌍둥이 언니랑 같이 오면 좋겠다.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착한 멘토 선생님들과 이끔이님들, 아이들과 하는 이야기나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각자 하시는 일 때문에 자주는 못 보겠지만 가끔이라도 모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청여문에서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 버릴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



멘토 김도원
성균관대 기계공학

멘토 여행후기 02

Always be shining same as now



Hello

For Diversity of this book and my specialty, I decide to write this Essay in English.
First of what I want to mention of 청여문 is the Special Relationships.
In the camp, The relationship can be meant to be with mentees or mentors. But I appreciate both. Last year, I tried to enter the university of Education. But I failed it and it was nightmare to me because of the fact I failed. It made me feel I've never succeeded in anything in my whole life.

At that time, I participated in the camp with teenagers in mazarello center and it made me refresh myself. The teenagers I met in the camp are still shining and lovely as I knew Even though I didn't achieve anything from the exam.
Actually the reason why I want to enter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as I want to take care of individuals, not company. So I want to make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s, Especially teenagers, and help them to grow up healthily. But I forgot this reason because I was obsessed with only the result I took.

But In this camp, The relationship with that teenagers made me reconsider why I studied for a year and what goal I wanted to get with this exam. The thing is, What I'm going to be doesn't matter to look after their growing process. No matter what I do as a job, I can keep in touch with them and also take care of them.
So The term I prepared for exam was not waste of my time. It was very precious and challenging time for me to approach my dream. So I appreciate the camp pulling me out from my depression and made me realize what was my goal in the exam.

Also the mentors I've met, you guys are the love...♥
You guys are so SPECIAL to me.
Thank you for your concern and encouragement when I was depressed with many worries.
Let's keep going to play bowling! or board game's also fine.

Lastly, I want to say thank 세희쌤, 한나쌤 그리고 팀장님 making this camp.
I cannot find this kind of camp which is perfect in every way.

Thank you al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안녕하세요
갑자기 영어가 난무해서 놀라셨죠?
제 특기도 살릴 겸 청여문 책자의 풍성함을 더해보기 위해 영어로 써봤습니다.
다들 가볍게 영어공부하시라는 의미로 따로 해석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매년 청여문에 참가하며 배우고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청여문을 구성해주시는 모든 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멘티들, 멘토 선생님들, 캠프를 만들어주시는 한국의 길과 문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려요.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만난 분들과는 좀 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 더욱 의미 깊었던 2015 청여문이었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쳐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Life is an ice cream. Enjoy before it melts!
인데 지금처럼 저랑 같이 계속 아이스크림 즐겨주시죠ㅎㅅㅎ

끝으로 다가오는 2016 청여문에서도 멘티, 멘토 모두 다 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와 2015년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멘토 김민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멘토 여행후기 03

길 위에서 쓰는 우리의 이야기

작년 나의 1년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었던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올해도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왔고 그 기회에 감사하며 여행을 떠났다. 2014년도 2015년도 청여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었다. 작년엔 그냥 여행이 좋고 아이들이 좋아서 떠났지만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내 자신이 지치면 쉬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참가했던 것 같다. 한 달에 한번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 타이밍에 딱 떠나 항상 아쉬워하면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또 떠난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떠난 일곱 번의 여행. 어떤 여행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장 먼저 참가 했던 3차 해파랑길 보물 탐사대. 8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달이였는데 떠나있는 동안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날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다. 그 더운 날 4박 5일 동안 한번이라도 화도 안내고 짜증도 안낸 아이들이 나보다 대단해 보였다. 늦은 저녁까지 프로그램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동을 하려고 초록 버스를 타는 순간 아이들은 신나하고 재밌어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즐거웠다. 언제 이렇게 좋은 아이들과 좋은 멘토들과 여행을 떠나볼까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다시 함께 걷기'에서 다시 만나 걸으면서 예전 이야기도 하고 추억을 함께 공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참가하게 된 6차 섬진강둘레길에서 만난 아이들. 황금빛 들판을 걸으며 섬진강을 걸으며 10월인데도 불구하고 덥고 산을 돌아다니는데도 낙오없이 끝까지 걸어준 아이들이 대단했다. 또 7차 충남 서천에서 만난 여자들만 떠난 여행에서도 우려와 달리 아이들이 너무 잘 걸어주고 잘 따라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8차 부산과 울산에서 만난 경상북도의 멋쟁이들과 예쁜 아이들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걸었던 것 같다. 연말에 다시 만나서 그동안 못 만났던 멘토들과 멘티들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12차 예산은 2년 전에 만난 어머님들을 다시 보았을 때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이었던 부여에서 그동안 인연이 되었던 멘토들을 다시 보아서 좋았다.

길 위에서 걸을 때 누군가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언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소중히 들어주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을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이들보다 잘난 것도 없었고 아이들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었다. 서로 배워야 할 점은 항상 있었고 깨달았던 것도 많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의 멘토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길 걷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내 마음 한켠에 남아 소중히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소감문을 마치면서 항상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최해선 팀장님과 세희샘, 한나샘, 사고한번 없이 안전하게 길 위로 이동 시켜주시는 박형윤 기사님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주 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는 내 멘티들! 4박 5일 동안 선생님을 가장 많이 챙겨준 성언이, 선생님이랑 같은 음악 전공이었던 민하, 쑥스러움이 많았지만 진지했던 영재, 꿈이 너무 멋지고 아는 것이 많았던 연호, 씩씩하게 걸어준 일평이, 멋진 감독이 어울리는 창희, 선생님이 제일 이쁘다던 민하, 평생 머리 해주겠다던 예슬이, 조근조근 이야기 잘했던 은서, 이제 멋진 대학생이 된 인규, 2년 만에 봐서 더 반가운 지웅이, 아리의 멋진 오빠 근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잊지 않을께♡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될 꺼예요.', '선생님 한테 수업 받고 싶어요.' 등 저의 꿈을 응원해주는 아이들과 멘토 선생님들에게 저는 더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멘토 박현진
가톨릭대 음악과

멘토 여행후기 04



기다려주고 끌어주는 서로가 있기에

주체할 수 없는 도전의식에 불타 참여하게 된 7월의 걷기 여행. 나를 포함한 8명의 멘토들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충남 당진 석문면에 있는 아동 센터로 향했다. 여행 전 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는 했지만 잠시 뒤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버스는 당진에 도착했고, 나는 아이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들과의 1박 2일 걷기 여행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누에가 징그럽다고 말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누에고치를 만져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마실길을 걸으며 도둑게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바닷가 근처에 세워진 돌탑을 발견한 나는 "우리도 돌 쌓으면서 소원 빌자!"라는 제안으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다 같이 사이좋게 돌탑을 쌓은 뒤, 나는 아이들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기현이는 "다음에 선생님과 또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올해에 여행을 많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나만의 소원을 빌었는데 말이다. 내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찡했는지 기현이는 모를 것이다. 계속되는 일정에 지쳤을만한데도 아이들은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얘들아 많이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웃으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에 길을 걷는 것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기다려주고 끌어주는 서로가 있었기에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행복했으며, 누군가와 어울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멘토 신나라
한밭대 중국어학





멘토 여행후기 05

청여문의 준 선물

처음 청여문을 접하게 된 건 먼저 다녀온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걷기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것을 느낀 친구가 저에게도 한 번 다녀오면 좋을 것이라는 말에 마침 여행이 가고 싶었던 저는 청여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뽑아주신 덕분에 처음 다녀 온 청여문은 충남 서천 여행이었습니다. 평소 소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저는 첫 여행에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만나려하니 조금의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버스 타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순간에 저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청소년들과 똑같이 진로나 학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친구관계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막상 저희 조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처음에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친구들도 다를 것 없는 청소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졌던 저는 다음 청여문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여행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었던 부산–울산 해파랑길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막 20살 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친구같이 느껴지고 이야기 나눌 때도 진로나 일상얘기에서도 잘 통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1박 2일보다 2박 3일간의 여행 동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이 끝나고도 제가 갔던 3개의 여행 중 가장 여운이 남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모–자녀 여행에서 저희조인 한 모녀는 여행 전 사전에 연락을 드렸을 때 '아이가 이 여행을 가는 것은 창피해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차에 탔을 때부터 계속 잠을 자던 아이는 내려서도 엄마와 따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모녀가 같이 걷게 되었을 때도 어머니가 조금 이야기 나누시다가 먼저 앞서나가 걷기 시작해서 모녀가 같이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걷는 중간에 서로에 대해 쓴 편지를 읽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이후로 같이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도 많이 하는 모습에 평소에 나눌 수 없었던 진심에 대해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시간만큼은 서로 돈독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여문을 다녀오며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캠프들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청소년과 많이 이야기를 나눈 캠프들은 처음이었고 좋은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진솔한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생각보다 성숙했던 청소년들의 생각에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멘티 중 한 친구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걷기 여행이 너무 좋았다며 또 다시 참여하고 싶다며 그때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 나눈 친구도 있어 멘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여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청여문을 통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청소년들과의 인연도 있지만 세희샘, 한나샘을 비롯해 많은 멘토샘들과의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청여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멘토 신지은
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

멘토 여행후기 06

일상의 여유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한 쉼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말을 한다. '삶에 여유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여유라는 것이 쉽게 허락 될 수 있는 것 일까? 매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학생들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에 치여 여유라는 것을 느껴 본지가 오래다.

나에게 청소년여행문화학교(이하 청여문)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아준 쉼표 같은 존재였다. 그 동안 함께 한 청여문 캠프와 부모자녀캠프, 그리고 멘토캠프를 통해 느낀 점들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에게 값진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싶다.

청소년 여행 문화 학교

청여문에 처음 오는 많은 멘토들이 고민을 한다. '1박 2일 동안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져야 하죠?'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 이러한 고민을 했다. 1박 2일 동안 무엇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아이에게 꿈을 묻고, 고민을 묻고, 내 경험담을 조언처럼 얘기해주었다. 하지만 이제와 보니 정작 아이들에겐 필요한 건 꿈에 대한 질문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조언보다 스스로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요즘의 아이들은 내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 아이들은 그저 이끌려 갈뿐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을 향해 달려간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멘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꿈을 찾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아이들 옆에서 함께 걸으며 각박한 도심, 학교에서 벗어난 자유와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푹신한 흙을 밟으며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줄 수 있다.
아이들도 한번 쯤 이런 쉼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청여문을 통해 아이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멘토의 다양한 경험담과 진심 어린 조언들이 함께 한다면 모두에게 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부모자녀캠프

사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자녀는 없을 것이다. 단지 살아가기 위한 삶, 그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바쁘고 각박한 현실에 지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끄러움을 이기는 용기를 내지 못했으리라.



멘토 이수연
교육컨설팅

멘토 여행후기 07



그토록 찾던 길 위의 보물은 바로 우리였음을.

내 첫 청여문은 전북 부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멘토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하며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내 멘티들을 만난 순간부턴 긴장은커녕 마치 내가 멘티가 된 것처럼 즐기기 시작했다. 가이드책자 뒤에 있는 퀴즈를 맞히려고 누에박물관을 이리저리 찾아헤매기도 하고 '몸으로 말해요' 라는 조별미션에서도 이겨보리라 안간힘을 썼었다. 그런데 해변과 산길을 걸을 땐 멘티들보다도 잘 걷지 못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날 더 챙겨줬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왔고 그제서야 '내가 멘토로서 무엇을 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놀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처음이어서 서툴렀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아이들과 다시 만나 걷고 싶단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대망의 해파랑길 보물탐사대. 출발하기 전만해도 4박 5일이라는 여정이 길게만 느껴졌었다. 그런데 어느새 자전거를 타며 느꼈던 경주의 유채꽃내음이, 직접 만들어 먹었던 인절미가, 다 같이 빠져들었던 영덕의 바다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 했다. 4박 5일 동안 모든 시간들이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편지를 읽어주었던 시간이다. 부모님이 직접 써주신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니 세미나실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었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을까. 그런 멘티들을 지켜보는 멘토들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나 스스로도 부모님께 말 한마디라도 애정을 담아서 해드려야겠단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4박 5일이 너무 긴 일정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 후 한동안 학교에 집중하다가 다시 청여문을 찾았을 땐 2015년의 마지막 차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는 김제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었다. 그래서 멘토, 멘티들의 신발이 젖기도 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 위에 눕고 눈싸움을 하는 등 천진난만한 모습에 손발이 시린지도 몰랐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 먹었던 보리개떡과 보리비빔밥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 아쉬웠다기보다 오히려 눈이 와서 다행이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거대한 고드름과 발목까지 오는 눈이불이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었기 때문이다. 눈이불에 누워 눈만큼 하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김제를 한 번 더 찾아가 봐야겠다. 내 딴에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보겠다며, 여행이 주는 교훈을 일러주겠다고 꽤나 자신 있게 청여문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배우고 온 것들이 많다. 나는 그저 들어줄 뿐이었고 함께 발을 맞춰 걸었을 뿐이었는데도 길 위의 모든 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여름의 무더움도 겨울의 한파도 이 교감에 장애물이 되진 못 했다. 나에게 이런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해준 아이들에게 이렇게나마 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1차, 부안 마실길을 함께 걸었던 혜정이, 선영이, 예령아! 난 아직도 내 지인들에게 너희 얘기를 하곤 해. 선영이가 우리는 성격이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1박 2일 내내 재밌게 보냈었잖아. 사진도 많이 찍고 퀴즈도 열심히 풀고 미술치료시간에도 열심히 종규샘을 말리던 너희모습이 떠오른다. 그 때 만들었던 누에비누는 잘 쓰고 있니? 숙소에서 너희와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잠에 들어버려서 정말 아쉬웠어.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줄 알았더라면 눈 밑에 치약이라도 바르고 밤을 새는 거였는데... 그치? 지금 이렇게 너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온다. 평택에서 본 이후로 연락이 뜸했네. 뒤쳐져서 걷는 나를 챙겨주던 너희가 선명하다. 내가 꼭 당진으로 내려갈게. 만나서 더 많은 얘기 나누자!
3차, 해파랑길에서 함께 보물을 찾아다녔던 승희야, 예린아, 지환아! 너희와 가장 오랫동안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 음악에 일가견이 있던 승희를 보면서 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얼마나 열정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승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했던 예린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낙이었지. 그치? 예린이가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귀여워서 다들 애정 어린 농담 한마디씩 건네곤 했었지. 지환이랑 종수가 옆에서 예린이를 놀리면서도 입가에 계속 미소를 띠고 있는 걸 보니 2시간을 넘게 걷고 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4박 5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장면 한 장면 꼽아서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라 믿어.

10차, 눈 덮인 김제의 새만금 바람길을 걸었던 성은아, 정환아! 정말이지 눈을 빼놓고는 김제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제에 눈이 정말 많이 왔었잖아. 그 눈이 쌓인 길들을 우리가 걸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꿈같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성은이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네. 고3이어서 고민이 많을 시기일 텐데 그 때에도 얘기했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은이 너에게 맞는 선택을 하리라 믿어.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정환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덕담을 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사실 난 김제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정환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너무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여서 였을까. 내가 있는 곳에서 평택은 가까우니 언제든 나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 때가 아주 나중이어도 좋으니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많아서 위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친구들아!
우리가 1박 2일 동안, 혹은 4박 5일 동안 그토록 찾아다녔던 길 위의 보물은 바위틈의 작은 꽃게도, 불어오는 바닷바람도, 잎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도 아니야.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 자신이란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낯선 사람들의 시선들 등으로 인해 이 사실을 잊고 지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언젠가 너희에게서 나란 존재가 희미해지겠지만 난 여기서 너희를 추억하며 응원하고 있을 테니, 어딜 가든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길 바랄게.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이수연 멘토가.



멘토 이수연
기 자

멘토 여행후기 08

삶의 활력이 된 청소년여행문화학교 걷기여행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안 마실길하고 부산 해파랑길에 두 번씩이나 멘토로 참가할 수 있었던 이종규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시다면 같이 여행간 우리 친구들과 멘토들 그리고 이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여행을 떠올리면서 잠깐이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안 마실길에서는 중학생 개구쟁이 4명하고 같이 갔고 부산 해파랑길은 막 고딩 탈을 벗으려하는 예비대학생 두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련하네요. 저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때의 조명과 시야.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갔을 때만큼은 많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음식 생각들은 별로 안 나네요. 같이 간 친구들 다들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밝은 청소년들이라 열심히 발전하는 중 일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초보의사로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어떨 때는 좌절감을 겪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뿌듯하고 보람도 느껴요. 어떻게 보면 청여문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볼 확률은 적겠지만 적어도 기억 속에 한 줄기정도는 남아있듯이 환자들 한명 한명한테도 능력을 다해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내 몸이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좀만 더 멀리 보면 정성껏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게 더 마음이 편해져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 사람의 기억과 신체 속에는 내가 남아있을 테니.

다시 청여문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저는 재작년 한번, 작년 2번 해서 총 3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청여문 캠프에 운영이나 기획을 맡지는 않았어요. 멘토로서 참가해서 주어진 역할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캠프에 관해서 직접 고민하고 연구를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런 혜택을 누린 것이지요. 청소년들이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멘토들하고 얘기하고 쑥쑥 자랄 양분을 얻는 것이 청여문의 큰 줄기이자 취지일 텐데 멘토로서 참여한 저 개인적으로도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기억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간 멘토 선생님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얘기해보면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이 바른 분들이었는데. 어느 분야에서건 멘토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한 것이 책에 실린다니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활력이 될 기회를 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여문 파이팅!



멘토 이종규
한림대 예비의사

멘토 여행후기 09

#감성너구리 #옷찢남 #남해부터부여까지 #상욱현우택성재성제현우진동학병수성민성지

2015년 7월, 내 인생에서의 가장 뜨거운 결정을 하게 된다. 청여문. 단지 공짜여행을 위해 시작한 나의 설렘은 새로운 멘토, 멘티에 대한 설렘으로 변해버렸다.

멘토링이란 단어는 무척 익숙했다. 물론 내가 멘티일 땐 그렇다. 하지만 내가 멘토?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일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 쯤 이미 난 남해로 가는 버스 안에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난 생각했다. 내가 멘토로서 잘 할 수 있을지를. 놀기 좋아하고 철없는 내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를. 하지만 청여문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멘토링이라는 틀에 박혀 늘 좋은 것만 알려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는 나의 가식들이 오히려 날 힘들게 했고 난 그냥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모두들 날 좋아해주었고 난 이일에 중독되어버렸다. 그들에게 나의 삶을 거짓 없이 이야기해주는 것, 나란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힐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지 않던 그 옷이 내 옷이 된 것 같았다!

청여문을 하면서 나의 청소년기를 회상하며 그보다 더 값진 삶을 살고 있는 멘티들을 보며 반성했고, 미래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며 하루하루 뜨거운 삶을 살고 있는 멘토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던 최해선 팀장님, 세희샘, 한나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이 글을 빌어 나와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15년 가장 뜨거웠던 여름날 그리고 길 위에 쌓인 눈이 우리 앞을 막았던 추운 겨울날! 뜨거운 태양도, 차가운 바람마저도 막을 수 없었던 우리의 여행! 청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곳곳을 알았고 그보다 더 값진 인연들을 만나 행복했다.



멘토 조만영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멘토 여행후기 10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마치며...

아이들을 만나며, 멘토들을 만나며, 팀장님, 이끔이 선생님, 센터 선생님들을 만나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름대로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만 잘나고, 나만 개성 있고, 나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보며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며 많은 감동이 되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잘해야지, 많이 배우고, 경험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며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웃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설명할 수 없는 섭섭함과, 또 시원함이 교차된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보내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아이들이 내게 주었던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많이 준비해야겠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과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청여문에서 만난 모두에게 정말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우울하다. 며칠 갈 거 같다. 짧은 시간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멘토 하은호
총신대 사회복지학





멘티 여행후기 01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여행길

1박 2일 동안 충남 서천으로 도보여행을 다녀왔다. 걷기여행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도 됐다. 옛날에 제주 올레길을 잠깐 걸은 적은 있지만 도합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걸어야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까마득했다. 내가 걷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여행은 시작부터 악몽으로 남았을 것이다. 일단 서천은 장장 4시간을 걸려 도착했다. 엄청 개발이 더딘 후비진 시골일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보다 깔끔하고 잘 가꿔져 있어서 놀랐다. 반대로 우리가 있던 동백꽃 마을은 푸근한 옛날 시골 느낌 그대로 담백했다.

추수를 금방 마친 논과 엄청 크고 토실토실한 각종 채소들이 널린 텃밭들. 목에 수건 한 장 두르고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줄에 묶인 채 짖어대는 큰 개들. 이빨이 군데군데 빠져있는 기와집 지붕 끝에 모락모락 뿜어지는 연기, 말린 홍고추, 자잘한 채소. 부끄럼 없이 털털하게 걸린 속옷들이 덩실덩실 널려있는 마당.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무인가게의 텅 빈 쓸쓸함까지. 시골의 매력을 새삼스레 또 느끼고 흠뻑 젖어왔던 것 같다. 그냥 걸으면서 마냥 편안하고 즐거웠다. 발 아픈 줄도 모른 채 이틀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걸으면서 곰곰이 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끝도 못 맺었다. 늘 있는 것인데도 항상 부족한 건 시간인지라 바쁜 생각을 다 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생각이 드는 여행길이었다.



멘티 김다원
???????????





멘티 여행후기 02

함께 걷는 것이 참 좋다





나는 걷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다. 청여문에 항상 올 때마다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 함께 걸으며 고민을 나누고 잊지 못 할 추억을 남기는 게 정말 좋아서 항상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해서 갔다. 항상 1박 2일로 다니다가 4박 5일이라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같이 걸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동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엄청 많이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떠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을 때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이세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남해 바래길에서 함께 걸었던 김시환샘과 춘천 봄내길에서 함께 걸었던 조영남샘이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에 기쁘기도 했다. 버스에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퀴즈를 하며 놀다 보니 금방 경주에 도착했다. 처음 보는 동해는 파도가 무섭게 쳤다. 상재샘 표현으로는 바다가 화가 났었다. 비가 와서 모두 노란 우비를 입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바다에 핀 노란 꽃처럼 정말 귀여웠다. 비를 맞으며 걸어서 힘들고 비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벽화와 교과서로만 보던 주상절리는 멋졌고 힘들게 걸은 후에 먹은 주상절리 빵은 정말 맛있었다. 걷다 보니 하루가 정말 총알같이 지나가 버렸다. 다음날은 자전거를 타고 경주 스탬프 투어를 했다. 이곳저곳 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 다음 포항으로 갔다. 포항에서 바다를 따라 걸었는데 그 바다가 정말 예뻤다. 다 같이 바닷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시원했다. 파도에 밀리는 자갈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참을 발을 담그고 있었다. 바다에 갈매기가 많아서 상윤샘과 과자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갈매기들은 근처도 오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안돼서 과자들은 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갔다. 호미곶에 가보니 기대했던 상생의 손이 보였다. 교과서로만 보았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손이 컸다. 여기서 상윤샘과 다시 한 번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눈앞으로 다가와 너무 놀라서 웃겼던 기억이 난다. 숙소는 양동마을이었다. 양동마을은 한옥집들로 돼있는데 거기서 자 볼 수 있다니 기대됐다. 양동마을에서 밤에 떡메치기를 하고 직접 만들었던 인절미는 정말 맛있었다. 밤에 숙소에서 시환샘에게 안마를 해드렸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다고 하면서 좋아하셨다. 시환샘은 츤데레다. 나한테 제일 장난을 많이 치시면서 나를 많이 챙겨주셨다. 다음날엔 영덕으로 갔다. 영덕 블루로드는 정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이 길었다. 재현샘이 자기 원래 셀카 잘 안 찍는다 하시면서 계속 사진 찍자고 하셔서 웃겼다. 재현샘 전공이 내 꿈과 관련된 컴퓨터 공학과라 조언을 듣고 싶어서 꿈이 컴퓨터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힘들어서 그러셨는지 대답이 없으셨다. 아무 말도 듣지 못 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걷기 때 오신다면 꼭 그쪽 분야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다. 영덕에서 숙소는 침대도 있고 정말 좋았다. 영덕에서의 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레크레이션을 하며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세희샘이 나영이를 혼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들리는 태희샘의 목소리.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 가기 전 엄마가 컴퓨터로 쓰고 있던 편지가 생각났다. '아 그 편지 읽어주는 시간이구나' 하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써준 편지도 아니었는데 왜 계속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다.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 편지가 마지막 차례였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다. 왜 내가 그렇게 울었을지 생각해보면 엄마랑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던 적은 처음이었다. 노는 동안에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가고 엄마가 동해를 좋아하는데 나만 본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 내가 그런 편지에 눈물을 흘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한다.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어린아이인가 보다. 나중에 청여문에서 갔던 아름다운 곳들을 가족하고 꼭 다시 가고 싶다. 다음날엔 해파랑길 21코스를 바다를 따라 걸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다. 모두 하나둘씩 바다에 들어가길래 잠시 망설였지만 나도 뛰어 들어갔다. 정말 차가웠지만 이렇게 예쁜 바다에서 노는 건 처음이라 즐거웠다. 바닷물도 엄청나게 짰다. 그리고 울진으로 갔다. 울진에서 걸을 때 현진샘과 연애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다.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 저녁에 짬뽕을 먹었는데 짬뽕 위에 큰 문어와 홍게가 올라와서 신기하고 진짜 맛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삼척으로 갔다. 레일바이크를 탄다는 소리에 춘천에서 세희샘이랑 같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앞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계속 박으면서 즐겼던 게 생각났다. 춘천에서는 강을 보며 탔는데 여기서는 바다를 보며 가니까 기분이 색다르고 세희샘하고 또 같이 레일바이크를 타게 되어서 좋았다.

4박 5일, 분명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하루처럼 지나갔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1박 2일 청여문을 다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글을 잘 못써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4박 5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내가 생각하는 길 위의 보물은 사람들인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걸으며 고민을 나누고 웃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행복했다. 끝으로 예쁜 사진 잘 찍어주시는 해선샘, 항상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세희샘, 안전에 힘써주시는 박형윤 기사님, 잘 챙겨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우리 멘토샘들 고맙습니다♥



멘티 김성언
영일고등학교

멘티 여행후기 03

항상 감사한 선물을 주는 청.여.문



보물 탐사대

4박 5일 청여문을 떠나는 날. 나는 그렇게 설렐 수 없었다. 벌써 3번째 청.여.문에 참여하는데도 언제나 여행을 갈 때마다 설레고 기대된다. 버스 안 내 자리는 맨 뒷자리. 양옆은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멘토 선생님들과 이끔이 선생님과 팀장님 소개까지 들으니 슬슬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실감났다. 선생님들의 소개가 끝나고 이세희 이끔이선생님께선 김성언과 김나영 그리고 나에게 청여문을 여러 번 참여해봤으니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한 소개와 자기소개를 부탁하셨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소개를 하자니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나에 대해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를 태운 버스는 경주에 도착했다. 경주에 도착해선 배고프니 일단 밥을 먹으러 갔다. 메뉴는 돼지두루치기! 누구보다 열심히 먹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젠 걷기 시작. 날씨가 짓궂어 우비를 입고 다들 열심히 걸었다. 주상절리 빵도 먹고 맛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레크레이션을 했다. 이 때 쌤들의 춤, 노래, 체력, 또 멘티들의 노래 실력과 약간의 노출ㅋㅋㅋㅋ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 첫 날 밤은 깊어갔다.

둘째 날은 마니또 선정과 자전거를 타고 스탬프 투어를 했다. 문화재를 보고 인증샷을 찍으며 자유롭게 다니며 멘토쌤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했다. 그리고 점심은 어제 레크레이션 때 이겨서 얻은 두둑한 용돈으로 해결했다. 배고파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점심을 먹고 버스로 돌아와서 보니 내 마니또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 그때부터 난 내 마니또가 누구일지 추측해나가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여 호미곶도 가봤고 숙소인 양동마을로 향했다. 불고기 백반을 먹고 떡메치기를 했다.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맛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선 숙소로 돌아가 씻고 방을 같이 쓰는 이수연 멘토선생님과 7, 8조 친구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셋째 날, 우린 아침을 먹고 양동마을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영덕으로 이동해서 4박 5일 여행 중 가장 극한의 고불봉 코스를 걸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지만 중간에 선생님이 준비하신 수박화채도 먹고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며 멘토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다 걸었다. 폐인 상태로 3일차 숙소에 도착했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이 끝나고 이세희 선생님께선 우릴 엄하게 혼내셨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릴 혼내시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멘토쌤들이 읽어주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우리에 대한 부모님들의 진심과 걱정, 바람이 담겨있던 편지가 전해지자 교실 안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면 이젠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차례. 다들 바닥에서 열심히 편지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넷째 날, 우리는 울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예정에 예정에 없던 물놀이를 하기도 했다. 젖은 채로 도루묵찌개를 먹으러갔다.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었지만 너무 맛있었다. 내가 몇 마리를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어서 월송정에서 보물찾기를 했다. 난 아픈 줄도 모르고 보물찾기에 전념했던 덕분에 남들보다 많이 찾았다. 보물찾기를 끝내고 다시 걷기 시작. 난 이세희 이끔이선생님과 깊은 얘기를 하며 걸었다. 선생님과 사진도 꽤 많이 찍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았다. 그 때 선생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킬거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특별한 짬뽕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미술치료를 하러 갔다. 말만 미술치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을 그려 조원들끼리 그림을 모으는 것이다. 모든 조가 자신의 그림을 발표하고 대게빵도 먹고 숙소로 돌아갔다. 새벽에 선생님들간의 몰래카메라에서 모두 열연을 펼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넷째 날 밤도 깊어간다.

마지막 5일차. 우리는 아침을 먹고 삼척으로 이동했다. 오늘은 걷기 대신 레일바이크를 타기로 했다. 멘토 선생님들이 제비뽑기를 하셔서 멘티 선정을 했다고 하니 나는 어떤 선생님의 조일까 하면서 설 다. 박현진 멘토쌤과 짝이 되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탔다. 얘기를 통해 얻게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다. 마지막 점심으로 토종닭백숙을 먹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마니또 공개를 했는데 난 이세희 선생님이 내 마니또였다는 것을 그 때 알았다. 난 참 눈치가 없나보다.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매번 헤어지는 건 더 힘든 것 같다. 하늘에서도 우리의 헤어짐을 아는 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줬다. 주륵주륵 엄청 쏟아지던 비. 4박 5일의 긴 시간동안 제 멘토선생님으로서 고생하신 김시환 멘토선생님 감사했고 좋은 사람들과 진짜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4박 5일간의 인연이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분의 멘토 선생님과 이끔이 선생님, 팀장님, 박사님 그리고 기사님까지 모두 즐거운 여행을 한 것 같아 좋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이나마 덜어냈고 제 진로에 대해 확신해질 수 있어 더없이 좋았습니다. 또 항상 여행 참여하며 느낀 거지만 얻어가는 게 많아 좋습니다. 3~4년 후엔 꼭 멘티가 아닌 멘토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걷기

청.여.문에서의 조금은 특별한 7번째 여행. 항상 친구들과 멘토선생님들과 여행을 가다가 행운이라 불리는 7번째 여행을 엄마와 함께 가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엄마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기분이 이상해서 평소엔 잘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되고 말도 더 더듬은 것 같다. 청여문을 몇 번 와봤다고 엄마에게 이런 저런 설명도 해주고 이 여행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엄마도 이 여행에 적응 된 것 같아 보였다. 그동안 항상 여행을 간다하고 집을 나서면 내가 여행을 떠난 그 긴 시간동안 엄마는 내 덤벙거리는 성격 때문에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혹여 밤에 일탈을 하진 않을까 속으로 많이 걱정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 걱정을 많이 해주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니 항상 내 걱정으로 불안했을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왜 그동안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친구들끼리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학교–학원–유도장–집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집에 같이 있는 시간도 줄었고 주말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하니 부모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많이 줄었다. 부모님 두 분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엄마와 함께 단 둘이 여행을 왔다는 것에 좋았다. 엄마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참여하시니 보기 좋았다. 1박 2일 간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엄마의 본 모습을 찾아드린 것 같았다. 엄마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집안일에 치였던 엄마의 모습 대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행복했다. 앞으로는 엄마나 아빠 두 분 모두 좋은 풍경을 함께 보러 다니며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 엄마의 눈물을 봤을 땐 마음이 아팠다. 평소에 내가 엄마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 더 우신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가 원하지 않아도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자식으로 태어날거에요' 내가 엄마에게 했던 말 중 일부이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엄마가 많은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다. 엄마와 맛있는 것도 먹으며 좋은 풍경을 보며 좋은 길을 걸으니 그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평소에 머릴 아프게 했던 고민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날 챙겨주시던 멘토쌤도 인상이 깊게 남았다. 멘토쌤은 나와 얘기하며 걷고 싶다고 해주셨고 앞서 가시다가도 길을 멈춰 나를 기다려주셨다. 그래서였을까 난 멘토쌤이 좋았다, 멘토쌤과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여행이 끝난 다음날 나에게 긴 장문의 톡도 먼저 남겨주셨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더 좋았다.







첫째 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에선 엄마와 나를 비롯해 참가 가족 모두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도 많이 하고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자세히 보지 못한 엄마의 그 눈을 마주치니 '내가 엄마의 눈을 많이 닮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울컥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엄마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을 썼을 때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에 대해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말없이 안아줬을 때는 그 누구에게 안긴 것 보다 더 편안했다.

1박 2일간의 짧고도 긴 여행의 끝엔 관심과 사랑이라는 교훈이 남았다. 여행 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 사랑한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게 많이 하게 되었다. 때로는 친구들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하면 더 얻는 것이 많아진다는 생각도 들게 했다. 다음에도 부모 자녀 캠프가 생긴다면 그때는 아빠와 함께 참가해 볼 생각이다. 아빠와도 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한다. 7번째 여행까지 길 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좋은 인연을 만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합니다!



멘티 김재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멘티 여행후기 05

2016년 1월 청여문 훈남-훈녀샘들에게

안녕하세요. 합정 방정환센터 남상준입니다. 이번에 멘토샘들이랑 센터샘들까지 12분이랑 가게 되었는데요. 나의 멘토샘이신 윤여경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종종 걸음이 느리신 건지 제가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사라지시고 뒤를 보면 저 멀리서 오고 계셨어요. 그래도 퀴즈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조만영샘, 만영샘은 처음엔 무섭게 생기셨지만 귀여우신 점도 있고 아이들의 장난에도 응해주시는 샘입니다. 비록 첫 날에는 눈을 많이 맞으셨지만 그것마저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조영남샘. 저랑 같은 방을 쓰신 샘입니다. 저희 방은 약 2~3시쯤에 잤지만 화도 많이 안내시고 재밌는 샘입니다. 네 번째 전현영샘. 현영샘에게 제가 눈뭉치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대도 웃어주시는 재밌는 샘입니다.

다섯 번째 이세희 샘. 232샘은 멘토샘들의 대장☆입니다. 세희샘과 관련한 퀴즈를 풀 때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제일 쉬웠어요. 제가 물어보자마자 대답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뻥이더라구요...) 여섯 번째 이수연 샘. 이수연 샘과 관련된 퀴즈가 남친과 며칠 됐는지 맞추는 문제가 있었는데 답을 얻기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해서 겨우 얻었습니다. 일곱 번째 김민승 샘. 민승샘이랑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키가 크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홉 번째 정한나 샘. 사진을 많이 찍으셨습니다. 열 번째 박현아 샘. 현아샘은 저희랑 같이 캠프를 갔는데 카페라 필름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도 웃으시면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열한 번째 이하용샘. 하용샘은 저랑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착한 샘인 것 같습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절대 왕따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민샘. 영민샘은 약간 왕따라고 장난쳤는데 그 장난도 받아주시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윤 기사님 1박 2일 동안 눈이 정말 많았고 눈길 운전 위험한데 안전하게 운전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눈길을 많이 걸었는데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
멘토샘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다음엔 큰 산을 올라서, 정상에서 우리나라를 내려다보고 싶어요.
상준 올림.



멘티 남상준
합정 방정환 센터





멘티 여행후기 06

1박 2일 걷기여행 즐거웠습니다

멘토 선생님들께

이세희 쌤은 이끔이로서 역할을 잘하고 말을 잘하신다.
우리 멘토 선생님이신 조영남 쌤은 착하고 우리를 잘 챙기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전현영 선생님은 착하시고 항상 밝고 활기찬 선생님이다.
조만영 선생님은 귀엽고 사랑스럽다.
윤여경 선생님은 책임감이 강하시고 착하시다.
이수연 선생님은 착하고 활기찬 선생님이시다.
이하용 선선생은 (자세히 모르지만) 착하시다.

이 밖에 내가 안 쓴 멘토 선생님들도 무조건 착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신경써주셨다. 선생님들은 착하시고 활기차고 밝다는 공통점을 가지셨고 단점은 없으시다. 나도 나중에 멋진 멘토가 되어 멘티들과 우리나라의 좋은 길을 걷고 싶다.



멘티 배정현
합정 방정환 센터





멘티 여행후기 07



함께 걸었던 멘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이에요. 저는 이 캠프를 다녀와서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제 자신을 느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멘토 선생님은 모르지만 멘토 선생님의 성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하용 샘은 성격은 멋지고 쿨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은 성격도 좋고 예쁘고 착하고 밝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조영남 선생님의 성격은 활기차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윤여경 선생님은 모르지만 잘생기고 착하고 성실한 선생님입니다.
이세희 선생님은 이끔이로서 역할을 잘하고 예쁘며 잘 이끌어서 좋습니다.
조만영 선생님은 개그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외모도 귀엽게 생겼으며, 다른 멘티들을 생각할 줄 아는 선생님입니다.
전현영 선생님은 착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른 조도 함께 챙겨주는 선생님입니다.
김영민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봤을 때 키가 크고 모자를 잘 쓰시고 외모 훌륭하였습니다.
김민승 선생님은 김영민 선생님처럼 키가 크시고, 예쁘시며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있으면 스티커를 막 주시는 너무 착한 선생님입니다.
박현아 선생님은 키가 작지만 귀여우시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화내지 않는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보배 만능 최해선 선생님과 박형윤 기사님은 유머도 있고 착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끔이 선생님과 멘토 선생님들의 공통점.
정말 예쁘고, 정말 멋지며, 단점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넘치십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다른 멘토 선생님과 사진을 찍으니 기분이 좋고, 추억이 남았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재미있었고 눈길을 걸을 때도 신발이 젖고 양말이 젖을 때 기분이 안 좋았지만 멘토 선생님이 말을 걸어 주시니깐 기분이 좋았고, 발냄새는 났지만 헤어드라이기로 말릴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이만 24명 중에 1명의 멘티–



멘티 배정환
합정 방정환 센터





멘티 여행후기 08

서로를 보며 배우고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시간들

어느 날 이런 연락이 왔다. 한국의길과문화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걷기여행 참가여부를 묻는 전화. 초등학교시절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지만 이 활동에 참가해 나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적응해 나갈지 궁금했고 무엇보다 모험을 좋아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가치 있는 활동인 것 같아 참석을 결심했다. 금요일 당일 집합장소인 동대구역 앞에 모였을 때 내심장박동소리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설레고 또 설 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여러 친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오다보니 멀게만 느껴져 행동도 마음대로 못했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1일차,2일차,3일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안의 나를 찾아가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나를 위해 열심히 하게 되었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맑은 공기로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보자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던 것 같다.처음에는 힘들고 적응해간다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언제부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왔고 가슴의 답답함까지 머릿속에서 정화되기도 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해파랑길,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안리, 간절곶, 진하해변, 농촌생활체험 등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뜻 깊고 소중하고 갚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렸다. 기대 반 걱정 반 안고 들어왔던 캠프. 21명의 소중한 인연 멘티 친구들과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던 멘토샘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박 3일을 동고동락하며 지냈다. 서로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우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언제 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멘토 신인규
방사선과 새내기



청소년 문화캠프에 다녀와서!

나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으로 청소년여행문화학교에 다녀왔다. 나는 그저 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누에박물관이나 부안 마실길을 걸으면서 이 캠프는 놀기보다는 아이들의 꿈이나 아이들의 생각을 멘토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추억을 만들어주는 캠프였다. 처음엔 오래 걷고 더워서 괜히 온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캠프가 끝날 때는 오히려 이 캠프가 1박 2일인 것이 아쉬울 정도로 재밌고 즐거우며 무엇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특별한 캠프였다.

우리가 평택대학교로 2박 3일 캠프를 갔을 때 이수연 선생님이 평택으로 오실 일이 있다고 평택대학교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주셨다. 이런 것처럼 이 캠프를 통해서 친해진 선생님도 생겼다. 이종규 선생님이랑은 캠프 후 만난 적은 없지만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가끔 하며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멘토 선생님들과 다시 캠프를 간다는 소식이었다. 캠프가 끝나고 나중에 멘토 선생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멘토 이종규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이끔이 선생님이신 이세희 선생님, 조영남 선생님, 멘토 선생님 중 우리와 같은 A조였던 1조의 멘토 선생님이신 이수연 선생님, 2조의 이종규 선생님, 사진을 찍어 주신 김륜혜 선생님, 같은 숙소를 사용한 김지훈 선생님, 별로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던 다른 멘토 선생님들, 처음 봤지만 함께 캠프를 즐긴 멘티형, 누나들과 다 같이 한 번 더 캠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대된다. 다시 가면 멘토, 이끔이 선생님들, 같이 캠프에 참가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 때는 나의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겠다. 이 캠프는 아마도 평생 내 머릿속에 기억 될 좋은 추억이다.



멘토 유민호
석문중학교





멘티 여행후기 10



그냥 정말 행복했던 시간

우리 센터에서 24명이 뽑혀서 충남 서천으로 도보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처음엔 솔직히 4시간 정도 걸어야 하고 거의 걷기만 한다기에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좀 짜증도 났다. 그런 상태에서 멘토 선생님이 조 마다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멘토 선생님은 누굴까 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하고 젊으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다. 우리랑 대화도 잘 통하고 계속 서천까지 가는 길에 버스에서 빙고 게임 등 여러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는 길이 전혀 심심하지 않았고 정말 좋았다.

처음엔 가기 싫다 싫다 했는데 가보니깐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간식도 푸짐했다. 순두부찌개에 된장찌개 밥도 2그릇 먹고 진짜 후회 없었다. 솔직히 서천 도착해서 물버들길 4시간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 정말 힘들겠지, 지옥 시작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멘토 샘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계속 걸으니까 4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계속 걸었고 (간식도 먹으며ㅎㅎ) 도보 탐방 끝나고 숙소 가서 짐 두고 칼국수랑 송편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정말 내가 한 것 치곤 너무 맛있었다. 식사를 다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우리 춤도 추고 치킨도 먹고 친구들이랑 다 함께 붙어서 자고, 그냥 너무 행복하였다.

나에게 이 기회가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의미 있는 1박 2일 보내고 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행복하다. 둘째 날 걸었던 철새나그네길도 재미있게 걸었고 점심에 먹은 주물럭 쌈밥이 정말 눈물 나게 맛있었다♥ 우리 멘토샘들과 수녀님, 선생님들 1박 2일 동안 감사하고 이런 기회주신 것 너무 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



멘티 이새봄
???????????





꼭 한 번 다시 갈게요

우리 센터 24명의 선택받은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 마자렐로 선생님과 수녀님들까지 충남 서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집에서 63빌딩까지 왕복하며 걸었던 기억이 많아 도보여행이라 했을 때 너무 좋고 기대가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도보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기도 했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 컸기에 군말 없이 갔던 것 같다. 멘토 선생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시고 챙겨주셨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많이 친해졌다. 멘토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4시간 가까이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부엉 바위가 있는 가파른 산도 올라가보고 저녁엔 직접 칼국수와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간식을 그렇게나 많이 먹었는데도 칼국수랑 송편이 넘어가서 신기했다. 송편의 색을 내는 모시, 단호박, 딸기의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가져와서 그런지 색이 고왔다. 오색은 오행, 오미, 오덕의 세 가지 뜻을 지닌 '만물의 조화'라고 불린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쑤시개로 꽃을 비롯해 여러 그림을 떡에 표현하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예쁜 송편이 탄생했다! 선생님들께서도 예술작품이라며 칭찬해 주셨다. 우리가 만든 송편은 센터 가는 날 아침에 먹었다. 아무튼 저녁엔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낱말 맞추기, 광고퀴즈, 넌센스 퀴즈, OX퀴즈 등 재밌는 퀴즈들과 오늘 하루의 경험과 추억을 그리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슈퍼스타일 때 췄던 춤도 다시 춰보고 맛있는 치킨도 먹었다. 하루 종일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 날 그린 부엉바위 그림으로 우리 조가 1등해서 선물도 받았다. 다음 날은 점심 먹기 전까지 철새 나그네길 중 해찬솔길을 2시간가량 걸었다. 나무마다 숫자로 된 이름이 있어 보이는 대로 말을 걸다가 왔다. 그리고 15m 높이의 스카이워크를 걸었는데 밑이 뚫려서 정말 아찔했다. 그래도 바닷가를 보며 뻥 뚫린 듯 시원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점심으로 주물럭쌈밥을 먹었는데 모든 반찬과 음식이 다 맛있었다. 센터 가는 버스 안에서 밀려오는 졸음에 두어 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1박 2일을 정리하는 퀴즈를 하며 여정을 행복하게 마쳤다. 내 생애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퇴소하고 나서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멘티 이지원
???????????





예쁜 길 위에서 설레던 시간들

도보여행은 제일 기대했던 프로그램이어서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었다. 우리 멘토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엄청 어색했지만 계속 말을 걸어주셔서 편해졌다. 맛있는 점심밥을 먹고 드디어 섬진강 둘레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길과 계단이 생각보다 험난해서 앞으로 갈 길이 걱정되었지만 조금 지나보니깐 괜찮아졌다. 가면서 중간 중간에 찍었던 조별 미션사진들은 너무 재미있었고 그냥 산길을 걷는 것뿐인데도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고 덜 피곤하게 걸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힘들게 걸은 후 증기기관차를 탔다. 난생 처음 탄 증기기관차에서 쫀디기를 먹으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열심히 걷다가 앉으니 편안했고 멘토샘과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곡성에 심청이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구경거리들이 많았다. 기차마을에서 컨셉 사진을 찍었는데 공중부양샷, 애기와 함께 걷는 컷, 미래 꿈 컷 등등 너무 재미있었다. 숙소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남자 멘토샘이 좋아하는 여자 멘토 샘에게 꽃을 주는 이벤트를 도우며 다함께 'ALL FOR YOU'를 부른 경험도 매우 기억에 남는다.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영화를 잘 몰라서 어려웠고 미술치료 시간에 우리가 장미를 잘 그려서 1등을 했다. 밤에 놀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 바로 잠든 게 조금 아쉬웠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심청이 효행길을 걸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잘 포장되어 있었고, 셀카도 찍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다. 배경이 좋으니깐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다들 헤어지는데 무척 아쉬웠다. 마지막에 친해진 이지원샘이랑 우리 멘토 모상은샘, 모든 멘토 선생님, 반.응.해 프로그램 친구들, 언니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멘토 장유진
목동중학교





멘티 여행후기 13



짧지만 값지고 좋은 추억이 된 시간들





전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전영재 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여행문화학교 해파랑길 보물탐사대를 부모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내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한 저는 방학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흔쾌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친구와 함께 같이 즐기고 싶어 제 오랜 친구 한명을 꼬셔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좀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친구가 제 맘을 읽고 같이 참가해준 것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필요한 짐을 챙긴 뒤 부푼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 해파랑길 보물탐사대는 사당역 앞에 모이기로해서 비교적 지방인 저는 아침 일찍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아버지의 차를 얻어 타고 사당역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친구아버지께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멘토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도착한 저와 저의 친구는 지루함과 무료함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 여행을 갈 분들이 보이기 시작 하더군요. 언제나 그렇듯 첫 만남은 어색한 가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당역을 뒤로하고 경주로 갔습니다. 버스에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공과 간단한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의 담당 멘토 분은 여자 선생님 이었습니다. 박현진 선생님. 얼굴도 미인(?)이시고 저의 친구와 성을 제외한 이름이 같으셔서 금방 외워졌습니다. 꼬박 5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경주. 하늘이 거뭇거뭇 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저희는 노란 우비를 하나씩 쓰고 읍천항 벽화마을을 둘러보고 파도소리 길도 걸어가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밤에는 서로 알아가는 레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때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제대로 익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도 아침밥을 먹고 첫째 날 밤에 있었던 레크레이션 시간에 미리 계획해 두었던 경주 스탬프 투어를 자전거를 타고 같은 조원들끼리 진행하였습니다.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 이 모두 경주 스탬프 투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떠나 포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구룡포항에 내려 일본 문화거리를 거쳐서 호미곶까지 걸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둘째 날에 가장 오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며 저희가 잘 곳인 양동마을에 도착한 뒤 밥을 먹고 '떡메치기'를 해보았습니다.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해파랑길 보물탐사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무척 힘들고 지쳤지만 함께 걸으니 힘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냥 즐겁고 신나는 레크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이끔이 선생님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끔이 선생님이 저희를 혼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각자의 자녀들에게 써주신 편지를 멘토샘들이 읽어주셨습니다. 어떤 멘티는 울기도하고 저도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의 셋째 날 밤 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경정 대게마을에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익숙해진 저희들은 이미 해파랑길 보물탐사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게마을에서 축산항까지 향하는 도중 바닷가에서 시원한 물놀이도 하였고 도루묵찌개를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엔 영덕에서 울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월송정에서 후포등대를 지나서 후포항까지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정말 맛있는 짬뽕을 먹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쯤은 짬뽕을 먹는데 거기서 먹었던 문어랑 같이 먹었던 짬뽕은 아주 만족스러운 맛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이끔이 선생님이 미술치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4일간 있었던 일들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을 조끼리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해파랑길의 마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 강원도 삼척에서 레일바이크를 탔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것이라 신기하였습니다. 4박 5일간의 여정 중 마지막 식사인 닭백숙을 먹고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당역으로 향하는 도중에 버스에서 마니또를 밝히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밌게도 저랑 같이 온 친구의 마니또였는데 나름 4박 5일간 잘해주었다고 생각하였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별이 오듯 저희도 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친해진 듯 했는데 막상 헤어지려하니 아쉬웠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상 헤어질 때가 되니 후회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희 집인 천안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의 멘토였던 박현진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영등포역을 지났을 때 선생님 생각이 나서 카카오톡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4박 5일간의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보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 전 개학을 하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해파랑길을 같이 걸었던 멘토와 멘티 분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짧지만 값지고 좋은 추억이 된 4박 5일. 그 4박 5일간 함께 먹고 자고 걸었던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청소년여행문화학교 해파랑길 보물탐사대에 참가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여행문화학교 화이팅!



멘토 전영재
계광중학교

멘티 여행후기 14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박 2일로 서천도보여행을 가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를 나와 초록색 버스 앞에서 내 멘토 선생님을 만났는데 착하고 귀엽게 생기셔서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멘토 선생님과 24명의 친구들이 버스에 타고 출발했다. 가는 동안 선생님들 소개도 듣고 게임도 했다. 게임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내가 뽑혀서 손가락 모양 볼펜도 받고, 멘토 선생님과 얘기도 하면서 4시간 만에 서천에 도착했다.

4시간 동안 걸어야 하기에 간식 보따리를 하나씩 챙기고 버스에서 내렸다. 시골이고 산도 많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냄새가 코에 쏙 들어왔다. 버스에서 장시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가 확 트였다. 가볍게 준비운동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전날 밤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땅에 웅덩이도 있고 철퍽철퍽 거려서 좀 아쉬움이 컸지만 정말 열심히 걸었다. 멘토 선생님 카메라도 빌려서 사진도 많이 찍고 떨어진 은행나무 잎, 낙엽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 부엉 바위가 있는 산도 탔는데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언니들 손도 잡아주면서 약간 힘들게 산에 올랐다. 올라가서 내려다 본 경치는 엄청 끝내줬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송편을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고 칼국수도 직접 다 만들어서 먹었다. 사먹는 것보단 맛이 없었지만 다 같이 만들었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어 맛있었다. 그리고 무당벌레 등 벌레들, 곤충들도 많이 봤고, 식당 아주머니들 힘들까봐 그릇 나르고, 식탁도 닦고 조금 도와 드렸는데 고맙다고 쌀 2봉지를 주셨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지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때 많은 퀴즈와 문제를 맞히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치킨도 먹고 함께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라고 15m 위 높은 철장 같은 걸로 되어있는 곳, 그 위도 걷고, 무서웠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센터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엄청 재밌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된 1박 2일이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멘토 정유나
??????????





멘티 여행후기 15

부안 마실길을 걷기여행을 다녀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센터장님으로부터 이 캠프는 부안의 멋진 길을 걷는 캠프라고 소개받았다. 평소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센터 앞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는 이끔이 선생님들과 멘토 선생님들이 계셨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초면이라 어색했지만, 어색함을 풀기 위해 얘기를 걸어주셔서 어색함이 쉽게 풀려갔다. 버스 안에서 이세희 이끔이 선생님과 조영남 이끔이 선생님 두 분이서 멘토 선생님들을 소개 해주시며,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해주셔서 모두들 빨리 친해졌다.

부안에 도착하여 맨 처음으로 새만금홍보관에 갔다. 책자에 적힌 미션들을 수행하며 홍보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홍보관을 둘러본 뒤 바지락 죽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처음 들어본 음식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점심을 다 먹은 후에는 바닷가에서 몸을 풀면서 팀미션을 수행하며 멘토 선생님들과 친해졌다. 그 다음 선크림을 바르고 생수를 준비하고 숲길과 바닷길을 번갈아 가며 2시간이 넘게 이글거리는 태양아래서 걸었다. 숲길을 걸을 때 애벌레가 떨어질까 조마조마하며 걸어가는데 동주가 내 옆을 쌩하고 뛰어가더니 넘어지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찾으려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수풀을 뒤져보았지만 찾지 못해 실망한 동주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분을 더 걸어서 버스에 도착하였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한 장소는 내가 제일 싫어하고 걱정되던 누에타운이었다.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었지만 멘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조금은 벌레가 무서울 텐데 당당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용기내서 들어갔다.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누에가루로 비누도 만들어 보았다 직접 누에를 만져보진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점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누에타운을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저녁메뉴는 오징어볶음이었다! 볶음을 다 먹고 비벼먹은 볶음밥도 정말 맛있었다. 밥을 먹으며 멘토 선생님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으며 캠프 첫 날의 해가 저물어갔다.

숙소에 도착하여 지친 몸을 씻고 다시 강당으로 모여 레크레이션을 했다. 진행은 이세희, 조영남 선생님께서 해주셨다. 레크레이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림 그리는 활동이었는데 우리가 1등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숙소에서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 잠들었다. 이튿날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 활동이 힘들 것 같아서 꾸역꾸역 다 먹고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잠깐 놀고 어제처럼 걷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나무꼭대기에서 애벌레가 떨어질까 무서웠지만 어제보다 나아졌다. 2시간쯤 걸어서 '내소사' 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길의 양쪽에 우람한 나무들이



쭉 서있어서 그 길을 걷는 동안 힘들었던 몸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다. 이 캠프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익숙한 우리 동네에 도착하여 멘토 선생님들과 작별인사를 하는데 깊은 정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진도 찍고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함께 걷기' 를 참가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 이 여행을 통해 평소 내가 무서워했던 일들을 경험해보면서 두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멘토 선생님들과 진로에 대해 상담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멘토 최승호
석문중학교

멘티 여행후기 16



걷는 것은 정말 좋다!

1박 2일로 충청남도 서천 도보여행에 다녀왔다! 처음에는 왜 계속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지 총 5시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걷는지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서 가기가 싫었다. 궁시렁거리면서 옷이랑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 버스 앞에서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고 조끼리 버스에 올라탔다. 충남까지 3~4시간이 소요됐었는데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늘 무엇을 하는지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퀴즈 맞춰서 선물 뽑기&빙고게임을 했다! 이끔이 선생님께서 진행도 재미있게 해주셔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3분 같이 되게 짧게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들려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를 먹고 걷기 시작했다. 4시간 정도 풍경도 구경하고 조별미션도 하면서 재미있게 걷고 선생님들과 같이 수다도 떨고 부엉바위가 있는 80m가량 되는 산도 올라탔다! 서울은 매연이 가득한데 숲을 걸으니 풍경도 볼 수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상쾌하고 4시간 정도 걸은 것이 4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또 저녁에는 우리가 직접 칼국수도 만들어 먹었다. 센터 이모님이 만들어주신 칼국수보다는 덜 맛있었다. 칼국수를 먹은 후에는 오색 송편도 만들었다. 호박 모양, 토끼 모양 등 만들어보니 뿌듯하고 빨리 먹어보고 싶었다. 밥을 먹은 후에는 레크레이션이 시작됐다. 조별로 모여 여러 가지 퀴즈와 개인전 OX퀴즈! 사포지에 그림을 그리고 9등분하여 각자 색칠하여 합치고 발표도 해보고, 9명이 모두 다르게 색칠하니 모두 개성 있는 것 같았다. 맛있는 치킨도 먹고, 숙소에 가서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그 다음날에는 동백마을 어머님들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아침을 먹고 바다와 소나무가 있는 해찬솔길을 걸었다. 1~2시간 정도 걷다보니 스카이워크라고 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스릴 만점 이었다! 처음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계속 걸으니 익숙해져서 재미있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가서 주물럭쌈밥을 먹었는데 이건 그냥 혁명이었다! 너무 맛있었다! 돌아갈 때도 이끔이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셔서 지루하지 않았고, 1박 2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또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갈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모든 수녀님, 선생님, 멘토 선생님 감사합니다♥



멘토 최연희
????????/





멘티 여행후기 17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

반.응.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활동으로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도보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 갔던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다시 찾아와서 정말 좋다. 내 멘티가 함께 가지 못해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참여하기로 했다.

멘토 선생님을 만나 버스를 타고 곡성으로 향하면서 처음의 그 어색함은 견딜 수 없었지만, 버스 안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하다보니 어색함이 조금 사라졌다. 곡성에 도착해 섬진강 둘레길을 걷다보니 어느 새 어색함은 완전 사라져있었다. 서로 장난도 치고 멘토선생님끼리 내기를 해서 섬진강물에 머리를 감은 것도 재밌었다. 출렁다리를 건너 느린 증기기관차를 타며 즐겁게 갔다. 증기기관차에 내려 심청 축제를 즐기고자 멘토 시환쌤과 조원 채연이, 서연이와 함께 돌면서 사진도 찍고 포토미션도 하고 우리 조만의 시간을 보냈다. 숙소에 도착해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며 서로 승부욕을 불태우기도 했다. 영화제목을 맞히면서 조이름도 말하지 않고 큰소리로 '가디언즈!!'라고 외친 서연이가 나중에 절대음감에서 게살샥스핀을 외칠 때는 모두가 숨넘어가게 웃었던 것 같다. 여러 게임을 하고 반응해 수료식 동영상을 보면서 선물도 받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함께 치킨을 먹을 때는 꿀맛 같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현진쌤께 모두들 하나씩 가진 고민을 얘기하고 현진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숙소를 떠나 심청이길을 걸으면서 예쁜 풍경이 보이면 함께 셀카도 찍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었다. 걷다보니 오늘이 가기 전에 도보여행이 끝난 다는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 식사로 김치찌개를 먹고 아쉬운 마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번호교환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하면서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거의 도착해갈 무렵 열심히 모은 칭찬 스티커 결산도 하고 선물도 주었다. 익숙한 풍경이 보이고 처음 만났던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니 이 여행이 끝났다는 것이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도보여행을 통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여행이 끝나고 멘토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와 연락하며 좋은 인연 이어가고 싶다.



멘토 추시연
신월중학교





얼굴+코멘트
추후 작업^^